

아베, 메이지유신 150년 맞춰 개헌 욕심

내년 3연임 의지 강조

전쟁가능국 수순 밝히

자민당 안에선 파열음

아베 신조(安倍晋三·사진) 일본 총리가 헌법 개정 의지를 재차 표명하며 3연임에 대한 야욕을 또다시 드러냈다.

24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밤 집권 자민당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홋카이도(北海道)에서 자위대 경찰이 추락한 사고를 언급하며 "(위험한) 장소에 가는 자위대를 헌법에 적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평화헌법의 핵심인 9조에 자위대



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공명당의 합의가 없으면 개정 못 한다"며 연립여당과 협력해 개헌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내년이 메이지유신 150주년이라며 "내 정권이 계속되면 150주년에도 (아마구치 현 출신인) 내가 총리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도쿄(東京)에서 태어났지

만, 본적지는 아마구치다. 정치 입문도 38세 때 아마구치 현에서 중의원에 당선되면서 하게 돼 자신의 정치적 고향으로 이 지역을 내세워 왔다.

교도통신은 메이지유신 50주년과 100주년에도 아마구치(山口) 현 출신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와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가 총리를 지냈다고 설명했다.

지지통신은 아베 총리의 발언은 내년 이후에도 같은 지역 출신인 자신이 집권하겠다는 의욕을 보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자민당은 지난 3월 당 총재 임기를 연속 '2기 6년'에서 '3기 9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당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 이래 2기 5년째 당 총재를 맡고 있는 아베 총리는 내년 9

월 열리게 될 총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아베 총리는 당시 연설을 통해 전쟁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의지를 강하게 천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개헌구상에 대해선 자민당 내에서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지난 23일 자민당 총무회에서 총리의 개헌구상은 헌법 9조에 국방군을 설치한다는 내용의 2012년 당 개헌안 초안과 논리적으로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에도 세시로(衛藤征士郎) 전 방위청 장관도 "초안에 대해 당이 공식 견해를 세워 발표해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연합뉴스

'사드 갈등' 풀리나...한중 화해 분위기

중국, 통관 제재 이전 회복

중국 당국이 한국 상품에 대해 까다롭게 적용하던 통관 제재를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 갈등이 발생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코트라 중국 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중순 중국 해관(세관 격)의 한국산 식품에 대한 통관 샘플링이 사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 한국 기업들의 수출이 원활해졌다.

상품 통관 때 샘플링 갯수를 늘림으로써 통관 지연은 물론 하자 발생 건수 증가를 유도하는 사실상 통관 제재를 내려 놓은 것이다.

지난해 7월 사드 갈등이 불거진 뒤 한

국산 식품에 대해 상품 레벨까지 꼼꼼히 점검하며 퇴짜를 놔던 중국 당국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중 관계 개선 분위기가 흐르자 사실상 보복성 통관 강화 이전 수준으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aT 관계자는 "4월까지의 한국산 식품에 대한 샘플링 검사 비율이 굉장히 높아 통관하기 매우 어려웠다"면서 "그런데 5월 중순부터 샘플링 비율이 사드 이전으로 돌아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중국 내 대형마트 등에서 한국 식품 입점에 대한 거부감은 여전히지만 베이징구(内蒙古) 지역의 경우 한국 식품 유통이 점차 늘고 있는 등 사드로 인해 경색됐던 한국 상품 불매 분위기도 가라앉는 분위기라고 감지된다.

/연합뉴스

"SNS 숨은 늑대 찾아라"...IS 테러와 전쟁 가속도

자생 테러리스트 포섭 통로

소셜미디어를 자정 노력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 맨체스터에서 발생한 대형테러 여파로 서방을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 테러와의 전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테러와의 전쟁은 민간에서 발생하는 자생테러 억제와 군대가 극단주의 테러집단을 제거하려고 펼치고 있는 거점 타격 등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일단 민간 사회에서 테러로 전향은 극단주의 세력의 선동을 억제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그에 따라 자생 테러리스트들의 주요 포섭 루트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가 견제를 받고 있다.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무장세력은 소셜미디어에 직접 선전·홍보 게시물을 퍼뜨리고 있다. 흔히 '외로운 늑대'로 불리는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양산하고 더 적극적인 추종자들에게는 원격조종에 가까운 테러수행 지시를 내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태 때문에 최근 미국에서는 테러 피해자 가족이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 업체가 IS 선전물이 자유롭게 유포되고 조직원을 모집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한 만큼 테러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게 그들의 판단이었다.

물론 소셜미디어들도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민간 차원의 극단주의 퇴치전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은 문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차단해 일부 효과도 거뒀다.

트위터는 12만5000건 이상의 IS 추종 계정을 차단했다. 그 결과 트위터에서 테러에 동조하는 게시물이 대폭 완화됐다는



슬픔의 맨체스터

공연장 테러가 발생한 영국 맨체스터의 엘버트광장에서 23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촛불을 밝히며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전세계는 22명의 사망자와 59명의 부상자를 낸 전날 테러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연합뉴스

연구결과가 나왔다.

텔레그램은 폭력을 선전하는 메시지 채널을 차단해 오고 있고, 페이스북도 폭력적인 영상 등의 게시물을 막기 위해 연내 3000여명을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부문에서 속도를 내는 테러와의 전쟁에는 대중의 참여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보안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테러리스트들이 다른 기법을 찾아내고 선동

을 막는 데도 한계가 있는 까닭에 시민들의 일상적 감시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안보 전문가인 프레드 플레어지는 미국 '더 힐' 기고문에서 이런 점을 지적하며 '보면 말하세요(See something, say something)' 캠페인이 테러 감지·예방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대중 참여가 더 큰 효과를 내러

면 특히 무슬림 사회의 자발적 협조가 절실하다는 촉구도 쏟아지고 있다. 이라크 모술, 시리아 라카와 같은 IS의 거점에서 펼쳐지는 극단주의 격퇴전은 최근 그 방향이 섬멸전으로 뚜렷하게 바뀌었다.

모술, 라카의 탈환이 가까워지면서 거점을 탈출하는 조직원들이 늘어남에 따라 IS에서 왕성히 활동한 외국인 조직원들의 거취가 초미의 관심사다. /연합뉴스

리비아계 대학 중퇴생 테러 용의자

"몇 년 새 급진 이슬람 빠진 듯"

지난 22일(현지시간) 밤 2만여 명이 운집한 영국 맨체스터 아레나 공연장에서 자살 폭탄 테러로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살만 아베디는 '조용한' 대학생이었다가 최근 몇 년 사이 급진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FT)와 가디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아베디는 1995년 맨체스터에서 리비아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22세의 독실한 이슬람교도 대학생이었다. 그의 부모는 무아마르 카다피 독재 정권을 피해 영국으로 이주, 런던에 살다가 10여 년 전에 맨체스터 남부 왈리 레인지 지역에 정착했다.

아베디는 네 명의 형제 가운데 둘째로, 그와 한 살 터울의 형 이스마일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은 2011년 카다피 정권이 무너지자 리비아로 돌아갔다.

아베디는 이번 테러 현장인 맨체스터 아레나와 불과 1.6km 거리에 있는 셸퍼드 대학교에 2014년 입학, 경영학을 공부했으나 지난해 9월 사실상 중퇴했다. 그리고 형 이스마일과 함께 올해 1월까지 현지의 한 케이크 공장에서 일하기도 했다.

아베디 가족의 친구와 이웃들은 그의 가족은 독실한 이슬람교도였다고 증언했다.

또 평소 다소 내성적이고 손윗사람에게 공손했던 독실한 이슬람교도인 아베디가 테러범이라는 사실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지 리비아 지역사회의 한 인사는 "그는 매우 조용하고, 언제나 공손한 소년이었다"며 "그는 정말 이런 일을 저지를 것 같



8살 소녀도 희생 영국 맨체스터 자폭 공격으로 사망한 22명 중 한 명으로 밝혀진 8살 소녀 샤페 로즈 라우서스의 생전 모습. 샤페의 공연장에서 일어난 까닭에 희생자 대부분은 청소년들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지 않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아베디와 그의 형이 예배를 드리곤 했던 '디스버리 이슬람교 사원'의 성직자 무함마드 엘-사예이티는 아베디를 위험한 극단주의자로 묘사했다.

그는 자신이 수니파 극단주의조직 '이슬람국가'(IS)를 비판하는 설교를 한 이후부터 아베디가 자신에게 증오를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영국 경찰은 이번 테러와 관련해 23일 오전 아베디의 형인 이스마일의 집을 급습하고, 그 인근에서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스마일로 추정되는 23세 남성을 체포했다. /연합뉴스

<h3>신안동, 해송빌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방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 내부깨끗, 주차장 여유 ■ 시세 - 1억 2천만원 ■ 매매 - 1억 5백만원 → 1억원 ■ 임대 - 보 5백만원에 월 45만원 가능 ■ 주인직매 H. 010-8902-7900 	<h3>나주, 다도면 임야</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상수도 전기 통신설비 ■ 부지입구까지 인입됨 ■ 기타 모든업종 개발가능 ■ 나주호 휴양림 / 둘레길 진행중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H.010-3605-5000 	<h3>광양, ㄷ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 (중동 락희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012년 신축 ■ 분양평수 210평, 실평 147평 ■ 점포 및 상가 밀집지역 ■ 모든업종 오픈 가능 ■ 감정/시세 - 13억 ■ 매매 - 6억 5천만원 ■ 주인직매 H.010-3605-5000 	<h3>금호동, 근린상가</h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구 금호동 243-6번지 ■ 서광병원 맞은편 코너, 130평 ■ 7층건물중 701호, 7층 전체 ■ 법인체 인수가능 ■ 시세및 감정 - 7억 ■ 급매 - 4억 8천 5백만원 (대출 4억 2천 5백만원 포함) ■ 주인직매 H.010-3605-5000
--	--	---	---